

영원한 4월의 봄을 노래합니다

4월은 봄이다. 단지 새싹들이 울러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자연의 봄만이 아니다.

4월의 봄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류달리 따스한 봄으로 안겨주고 인민들이 봄중에서 4월의 봄을 특별히 사랑하고 즐겨 노래부르는 것은 이 4월에 절세의 위인이 탄생하시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인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인민의 아버지이다.

그이께서는 4월의 봄날에 수수한 초가집인 만경대고향집에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었다. 이 4월의 봄, 만경대의 봄이 있어 오랜 세월 봉건사회의 락후와 빈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강도, 왜적에게 란도질당하여 쓰라린 상처를 입었던 이 땅에 진정한 인민의 봄, 조선의 봄이 오게 되었다. 그 봄날이 있어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게 되었다.

지난날 우리 겨레는 봉건제도의 질곡속에서 살면서, 일제의 학정하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태를 묻은 땅, 자기 운명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사회를 갈망해왔다.

민족의 세기적수목은 절세의 예극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비로소 성취될수 있었다.

이 나라의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것없이 애창하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칭송이 그대로 응축되어있다.

4월의 아름다운 봄날과 더불어 사람들이 더욱 절절히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아름다운 시어와 선율이 마음을 실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과 인자하신 미소, 따뜻한 손길, 거룩한 체취가 숨엄히 안겨온다. 그이의 예극애민의 고귀한 한생이 가슴속에 뜨겁게 마쳐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10대의 시절에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생각하시었다. 민족의 소망을 기어아 푸시려는 뜻이 원대하시였기에 꿈 많은 소학교시절에 지으신 《애극》이라는 제목의 작문에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

을 위하여 복부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무로 된다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이상, 포부를 펴려하시었다.

과연 이 땅에서 왜놈들이 없었겠는지, 언제면 나라가 망국의 치욕을 벗겼는지 생각하며 온 민족이 조국해방만을 일일천후로 학수고대하고있던 암흑의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나라의 독립도, 민족의 밝은 전도도 그려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화성의속에서 공부하시던 때 학우들에게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그런 사회를 세우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애국의 뜻과 의지가 강렬하고 포부가 원대하고 결심이 확고하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함일대전을 선포하시고 포어린 무장항쟁으로 간악무도한 일제를 라도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성취하시었다.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험난한 빈터우에서, 전후의 폐허우에서 새 민주조선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짧은 기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었다.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사는 제도,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같은 인민적인 시책을 베푸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 노래는 사람들의 생활의 반영이고 풍부한 감정정서의 발현이라고 한다. 때문에 노래를 심장의 언어라고도 하고 시대의 메아리라고도 하는것이다. 외세에게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것처럼 소원한 새 세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인민이 복받은 시대, 나라가 번영하는 시대에 노래 《세상에 부



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제 50(1961)년 4월

럼없어라》가 태어나 온 나라에 메아리쳐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꼽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지난 세기 60년대에 나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에 담긴 아름다운 리상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어 장강 수심성상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자국은 나라의 동북쪽 마지막마을인 우암동과 해발 2500m를 헤아리는 관모봉기슭에 자리잡은 경성군 은포협동농장에도, 파도가 솟구치는 바다를 향해하시며 몸소 찾으신 비단섬과 20리 날따다를 가로막을 gap문의 위치를 정하여주시

해의 배길에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제83(1994)년 6월 30°C 이상의 무더위속에서 인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한다시며 지팡이를 승용차에 두시고 불현하신 몸으로 밖에서 오랜 시간 농사일을 의논하신 사연을 온천군 금당벌의 농민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인민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항구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부르는 노래, 알고있는 많고 많은 노래가운데서도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그토록 사랑하고 제일 많이 부르

러왔다. 위대한 수령님시대에 부르고부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온 나라 남녀노소가 사회주의찬가로 더 자랑하게, 더 즐겨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식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손수 붉은 테

프를 꿇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람하게 솟아있는 궁전을 바라보시었다. 기본건물의 랑총날개가 곡선을 이루면서 마치 두팔을 벌리고있는것 같은 궁전의 자태는 학생소년들을 사랑하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하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궁전이 아주 멋있다고, 설계도 잘하고 짓기도 잘하였다고, 설계가들이 형성도 안을 《품》이라고 하였다고, 데 뜻깊게 이름을 지었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

고있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참 좋은 노래이라고 하시었다. 그날 궁전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라고 하시며 당의 품이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다

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신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민의 마음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가 끊임없이 울리

었다. 나라의 정세가 엄혹하고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밀려들던 고난의 시기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우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많은 대책안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한푼의 자금이 것처럼 귀하였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시책을 중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었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었다.

때로는 폭잡으로 휴식을 대신하시고 꿇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험한 칼버

랑길과 파도 세찬 바다길을 헤치고 최전연초소들과 천 리방선을 찾으

는 시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장정이 있어 인민들은 자기의 생명이고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었고 자주적 인민의 존엄을 떨칠수 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걷는것이 자신에게는 락으로 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래일을 향하여 자신께서는 기발을 들고 앞으로만 내달리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조국의 하늘은 맑고 푸름을 잃지 않았으며 인민의 복리향상과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나는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새 세대들은 물론이고 머리흰 로인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이 오늘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 노래는 시대의 숨결을 반영한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도 몰라보게 변하였지만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조선의 제도와 정치는 변함이 없고 인민사랑의 리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이 조선에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사랑을 친필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시

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지니시고 모든 국가사업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데로 지향시키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민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세 해전 1월 정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

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라고 언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실현을 위하여 열사부부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중령남새온실농장 등 새 도시, 새 거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과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명문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인민의 웃음을 사회주의 강국의 제일정표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공화국이 버리는 정면돌파전도 인민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지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복무전이다. 열마진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로 일관시킴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 하시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결연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가다듬으며 전변의 열사부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화창한 4월의 봄날과 더불어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리 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 길에 전해지는 한장의 뜻깊은 사진이 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가던 19세기말에 태어나 반일의 뜻을 품고 신간회에 참여한 박보우가 장정소설 《림정정》의 창작으로 일제에게 항거해보기도 한 홍명희선생.

해방후 남조선에서 민주독립당 당수로 활동하면서 1948년 4월

에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그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평양에서 보낸 나날은 불과 며칠되지 않았지만 이날에 그의 가슴속에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결심이 깊이 뿌리내렸다.

주제47(1958)년 5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내각 부수장이었던 홍명희선생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고 어느 한 호수가로 향하시었다. 그이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호수가에 도착하시었을 때 그곳에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몇 일꾼들과 함께 이미 와계시었다.

호수가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공기도 참 맑다고 하시며 환하신 모습으로 호수가를 바라보시었다.

홍명희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보트를 라지 않겠는가고 물으시었다.

홍명희선생이 《보트를 라 고싶으니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노를...》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자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노를 저어드리겠다고,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또 보트를 라보겠는가고 하시며 그를 배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었다.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찌 배에 오르시라고 재삼 권하시었다.

그제서야 너르한 자기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그는 눈앞이 흐려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가 배에 오르려는것을 부축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배의 곁목쪽에 앉히시고 자신께서는 가운뎃자리를 잡으시며 노를 쥐시었다.

잔잔한 수면우에 하얗은 사연을 담은듯 무수한 파문이 일어나고 배는 미끄러지듯

기슭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수령님, 노 저으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수령님께서는 조용하신 음성으로 선생이 젊으신 때에는 배를 라겠는데 이제 칠순이 넘었으니 언제 배를 라보시겠는가고, 그래서 내가 호수가로 모셔 왔다고, 늘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라도 산

보도 하고 배놀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로당직장하여 통일의 날도 보고 서울에도 나가보셔야 할것이 아닌가고 뜨거운 정을 담아 교시하시었다.

만시름을 놓고 행복에 넘

어 수령님께서 라신 배를 향해 굽히 노를 저어가시었다. 이날 내각수상과 부수상이라는 관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노를 저으시며 배를 호심

깊이 몰아가시는 절세의 위인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에게 모든것을 다 맡기고 청춘이 되살안듯 환하게 웃고있는 홍명희선생의 모습을 담은 뜻깊은 화폭은 바로 이런 사랑속에 마련되어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 새겨져

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홍명희선생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회

깊이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 홍명희선생과 단 둘이 탄 배에서 직접 노를 저으시는 력사적인 화폭을 담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찍은것입니다. 그때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그 모습을 사진 찍으려고 하니 홍명희선생은 사진을 잘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력사의 화폭앞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굳게 믿어주시고 한없이 송고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덕망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이렇듯 위대한 품에 안긴 홍명희선생이였기에 제생의 삶을 지닌 그날로부터 문화국정부 부수상, 초대과학원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고 오늘도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예극렬사로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감직하고

민족최대의 경사로온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가슴에 사무쳐온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은 온 겨레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지금도 그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를 때면 60여년 전 그날의 감격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른다.

주제 43(1954)년 8월 나는 모란봉지극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7차 군무자세출결연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준엄했던 전하의 나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락월한 령도따라 용맹을 떨친 영웅전사들의 무대에서 나는 민요창으로 《가르리랑》을 부르고 민족기악학주 《아리랑》에 출연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화선악기, 화선음악으로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전후에는 군무자세출결연무대까지 마련해주시어 어찌날 로동자, 농민출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박한 전승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그러도 대견히 들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화선악기, 화선음악으로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전후에는 군무자세출결연무대까지 마련해주시어 어찌날 로동자, 농민출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박한 전승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그러도 대견히 들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화선악기, 화선음악으로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전후에는 군무자세출결연무대까지 마련해주시어 어찌날 로동자, 농민출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박한 전승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그러도 대견히 들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화선악기, 화선음악으로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전후에는 군무자세출결연무대까지 마련해주시어 어찌날 로동자, 농민출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박한 전승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그러도 대견히 들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비전향장기수 최선득